

공공미술, 광주 '문화 지도' 바꾼다

최근 공공 미술이 광주의 얼굴을 화사하게 바꾸고 있다.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북덕방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대인시장에 작가촌이 생기고 무등산 기슭의 산골마을이 설치작품 하나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관이나 일부 단체의 주도로 진행했던 벽화 작업도 주민들이 직접 작품의 컨셉트를 결정하는 등 작가와 지역민이 결합된 생활 밀착형 예술 행위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광주의 구석구석이 불거려 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50년대 이후 형성된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이 모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공동화로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는 등 날로 쇠락해 가던 대인시장이 활기를 찾은 것은 '북덕방 프로젝트'의 덕분이다.

박성현(롯데갤러리 큐레이터)씨가 기획한 '북덕방 프로젝트'는 생생한 삶의 현상이 묻어나는 시장의 빈점포를 무대로 작가들의 예술공간을 키우는 이색적인 이벤트. 현재 윤남웅, 노정숙, 이상호, 조수진, 신양호 등 13명이 작업실 입주자를 마쳤다. 이들 작가들은 관람객들에게 작업실을 공개하고, 아트 서적을 판매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예술 명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신호윤씨 등 10여명의 지역 작가들이 10여년째 방치됐던 대인시장 빈점포(165㎡)를 전시장으로 갖춘 예술 공간 '미나리'로 개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인시장 점



23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에 그려진 벽화를 주민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대인시장 작가촌 문화의 명소로 운림동 담장엔 노송·해바라기꽃 구석구석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포 30곳을 임대한 뒤 예술인들에게 무료 제공해 창작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광주 중심사 길목에 위치한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도 지역 작가들과 인근 마을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무등산 입구에 위치한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 입구에 솟대를 세웠고 이진상, 정현경씨 등이 마을 담벼락에 노송과 해바라기 꽃을 수놓았다.

이번 행사는 여성 미술그룹인

'현대미술가회'의 초대전(9월5일~11월2일)의 일환으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미술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은 지난 7월 마을 주민들과 이태호(경희대 미대 객원교수), 지역작가 이매리, 정보연, 유현희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 아트 워크숍'을 갖고 작품 주제 등을 정했다.

광주비엔날레에 소개됐던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도심 옥벽에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운

암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금과공업고등학교 옥벽(100m)에 광주비엔날레 작품을 대형 벽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 작품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1995년)에서 대상을 차지한 알렉시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와 2회에 출품된 알랭 세샤스의 '애니메이터'(Animator) 등이다. 이들 작품은 지역 주민 500여명이 설문을 통해 뽑았고, 오는 11월 완성을 목표로 현재 지역 작가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생들로 주축이 된 '소망의 빛 프로젝트'가 서구 양동동 발산교 인근 달동네 통샘마을에 LED(발광다이오드)전구를 이용한 섬유작품을 설치, 낙후된 도심 풍경을 산뜻하게 바꿨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소설로

공지영씨 장편 '도가니' 11월부터 '다음'에 연재

소설가 공지영(사진)이 광주 인화학교 사태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도가니'를 오는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재한다.

소설 '도가니'는 무진이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과 수습과정을 토대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 부도덕한 상류층과 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자 싸우는 사람들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지난



장은 공씨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과정을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

건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놓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도 만나 등 작가가 이미 사건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장애인에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5년 이 학교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4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미기자 emlee@kwangju.co.kr

남는 공연티켓 학생·교사에 70%할인

문광부 내년 도입...공연장 여건도 개선

판매되지 않고 남는 공연티켓을 확보해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 등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하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대회의 '카페 장'에서 발표한 '생활문화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미판매 티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과 교사 등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운영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의 연극발전재단

(TDF) 회원제를 모델로 삼은 이 제도는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로부터 일자별 미판매 예상티켓을 미리 수집, 온라인을 통해 티켓 리스트를 실시간 제공하고 정가의 20~30% 수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랑티켓 사무국이 주관하게 될 이 제도는 내년엔 국공립 공연장에 시범 도입한 뒤 민간공연장과 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연계는 무료티켓이나 초대권 관행을 개선

하면서 추가 수입의 기회를 열고, 대중성과 지명도가 낮은 초연 작품의 '입소문 마케팅'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를 '공연예술 활력 창출기'로 정하고, 국고와 기금 등 모두 125억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고교생과 수험생 등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외지역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후 문화회복' 행사 등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2008 광주팝페스티벌

25일 오후 2시 유스퀘어 야외광장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축제 2008 광주팝페스티벌이 25일 오후 2시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꿈꿔라 청춘아! 또 다른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음악 경연, 유명 뮤지션들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음악 경연에서는 전국 74팀 가운데 온라인 심사와 실시간 등을 거쳐 선발된 '상승기류', '일곱종 기약 합주반', '레모니마카로니', '라스트 그루브', 김현지·김홍씨 등 6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또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는 '팝스 터미널'에는 최근 4집 음반을 발표한 합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를 비롯해 아일랜드 음악을 선보이는 '부번째 달', '슈퍼키드' '록타이거즈', '홀리건', 이장혁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지역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사운드 오브 전라도'



다이나믹 듀오

코너에서는 가요인 연주자 홍윤진씨와 인디밴드 '윈디켓', '스타피쉬'가 함께 무대를 꾸미며 지난 5월 열렸던 2008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룹 '무브 잇'과 비보이 그룹 'Acid-B'가 멋진 공연을 선사한다. 행사 중에는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노천 카페를 운영하며 음반전시·판매, 유명 음반 자켓 포스터 전시회, 대중음악 관련 서적 판매, 악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문의 062-973-95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평중 사진비평 강연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사진 전공자들을 위해 24일 오후 4시 동구 금남로본관에서 사진비평가 박평중(사진)씨를 초대해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강연회는 금남로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메타 텍스트, 메타 이미지'전(17일~11월9일)의 부대행사로 마련됐고, '현대 사진과 사진 속에 담



겨 있는 텍스트'를 주제로 자료 사진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씨는 파리 10대학에서 미학 박사 학위를 따고, '혼자의 미학' '사진의 경쟁' '한국사진의 선구자들' 등의 저서를 냈다. 한편 '메타 텍스트-:전은 김나을, 노상익, 이정, 장명근, 여락, 정소연, 이영욱, 박일구씨 등이 참여한 다양한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3574. /오광록기자 kroh@

광주디자인센터,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가입

광주디자인센터(회장 이봉규)가 세계적인 디자인 단체인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회원기관으로 가입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23일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ICSID 이사회에서 광주디자인센터의 회원 가입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ICSID는 전세계 50여 개국 150여 개의 디자인진흥기관, 대기업 디자인센터, 대학, 디자인 기업 등이 회원으

로 가입된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단체이다.

ICSID 가입으로 광주디자인센터는 외국과의 인적 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글로벌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코리아디자인멤버십' 등의 교육 사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영화 소개 이미지들

메가박스
구.린원역국사거리 ☎060-1544-0600

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최고등급
2관	미쓰 홍당무 (184)	
3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4)	
4관	미쓰 홍당무 (184)/화피 (154)	
5관	이글아이 (124)	
6관	하우투프렌즈 (154)/데스레이스 (184)	
7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4)	
8관	공작부인 (154)	
9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2관	모던보이 (124)/맘마미아 (124)	
3관	미쓰 홍당무 (184)	
4관	하우투프렌즈 (154)/신기전 (154)	
5관	데스 레이스 (184)	
6관	내천구의 사생애 (154)/비빌른 A.D (124)	
7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4)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빌딩아파트 지하 1층) 해남점 (무의역면역센터)

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2관	사과 (154)/미쓰홍당무 (184)	
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4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5관	신기전 (154)/도쿄 (154)/하우투프렌즈 (154)	
6관	공작부인 (154)/데스레이스 (184)	
7관	맘마미아 (124)/이글아이 (124)/화피 (154)	
8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4)	
9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4)	
10관	이글아이 (124)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1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4)	
2관	미쓰홍당무 (184)	
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4관	하우투프렌즈 (154)/화피 (154)	
5관	공작부인 (154)/사과 (154)	
6관	이글아이 (124)	
7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4)	

하미 시네마
친대후문 하이포박스 ☎267-7777

1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4)	
2관	도쿄 (154)	
3관	화피 (154)	
4관	하우투프렌즈 (154)/모던보이 (124)	
5관	미쓰 홍당무 (184)/데스레이스 (184)	
6관	맘마미아 (124)	
7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8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4)	
9관	이글아이 (124)	
10관	신기전 (154)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

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	
2관	아내가 결혼했다 (184)/하우투프렌즈 (154)	
3관	이글아이 (124)	
4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4)	
5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4)	
6관	미쓰홍당무 (184)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가 결혼했다

바디 오브 라이즈

사과

하우투프렌즈

그 남자의 책 198쪽